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생활밀착 서비스의 확대와 금융권 동향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KDB산업은행
미래전략연구소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생활밀착 서비스의 확대와 금융권 동향 1

국제금융시장 4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8

생활밀착 서비스의 확대와 금융권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수 경 (sk.kim@kdb.co.kr)

◆ 생활밀착 서비스의 공급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O2O서비스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급성장세를 보임

◆ 생활밀착 서비스의 동종·이종 업계간 협업이 증가하는 가운데, 국내외 금융회사들도 자사의 금융플랫폼에 생활밀착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

□ 생활밀착 서비스 산업은 비대면·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ICT와의 결합을 통한 공유경제·배달앱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 중

○ 생활밀착 산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(Online to offline)*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

*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끌어오는 사업모델로 배달의 민족, 요기요 등 배달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제공

- 1인가구 확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소비·문화·여가를 집에서 해결하는 홈코노미*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어 가사·교육·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이 등장

* 집(Home)+경제(Economy)로, 음식·생활용품 배달업, 대여업, 엔터테인먼트(게임), 케어(청소) 업종 등

국내 주요 생활밀착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현황

플랫폼명	내 용
당근마켓	지역기반 앱으로 중고 상품 거래 및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, 월 이용자 1,400만명 및 '20년 약 1.2억건 거래 이루어지며 '21년 2월 쿠팡에 이어 쇼핑앱 2위를 기록
숨고	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(고수)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, 이사·청소·도배·퍼스널트레이닝(PT)·레슨 등 1,000여개의 카테고리 제공
런드리고	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제공, 스마트 빨래 수거함을 통해 세탁물 수거·세탁·배송을 하루만에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월평균 3만5천 가구가 이용
자란다	자체 개발한 선생님 매칭 알고리즘과 아이 및 선생님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교육 매칭 플랫폼을 운영
청소연구소	홈클리닝 서비스(청소·세탁·설거지 등)를 필요로 하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(매니저)를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매칭하여 주는 구독 서비스 플랫폼 운영

자료 :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종합 재구성

○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 증가 및 기술 발전으로 '20년 기준 O2O 서비스 거래액은 126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9.6% 증가하며 급 성장세를 보임*

* 과기정통부 보도자료('21.4.9자), "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"

- '20년 O2O서비스 기업은 총 678개로 전년 대비 123개 증가하였고, 플랫폼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53만개 수준으로 전년비 55.6% 급증
-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되는 외부 서비스 인력*은 '20년 기준 약 56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8.1% 증가함

* 배달대행앱의 배달기사, 가사·청소앱의 가사도우미, 애완견 돌봄앱의 펫트레이너 등

□ 생활밀착 서비스 산업은 중개 위주의 자사 플랫폼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동종·이종 업계간 합종연횡 및 플랫폼 내 제휴가 활발해짐

○ 단일 서비스 품목 기반의 싱글 플랫폼 모델에서 진화하여 타 업체와 제휴를 통해 기존 영위 사업 외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멀티 플랫폼* 전략을 추구

*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앱 내에 외부 앱인 세탁특공대(세탁), 미소(이사), 펫트너(반려동물 케어) 입점

○ 온라인 편의성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통합한 서비스 확산되며 생활밀착 서비스 플랫폼과 오프라인 채널의 제휴*도 증가하고 있음

* 당근마켓과 GS리테일(편의점)은 협업을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김밥 등 간편 식료품의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당근마켓 사용자 거주지별로 제공하여 제품 폐기율을 낮춤

□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며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(big blur)*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도 자사 금융플랫폼에 생활밀착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'생활금융 플랫폼'으로 변모하고 있음

* 기존의 고유 영역과 법칙이 무너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(스탠 데이비스(1999), "블러: 연결 경제에서 변화 속도")

○ 글로벌 시가총액 Top10 기업 중 7개가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*인 가운데, 네이버,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도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

* 아마존, 애플, 알리바바, 알파벳, 텐센트 등 (삼정KPMG 경제연구원, "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" '21.1월호)

- 플랫폼 내 쇼핑·검색·결제 정보의 활용으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과 더불어 생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구축은 소매금융의 경쟁우위 요소가 되고 있음

○ 해외 금융회사들도 자사 금융플랫폼에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자사 모바일 앱에 각종 생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향후 앱 기반 금융·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 확보 도모
- 플랫폼 내 교차판매 및 고객 생활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

○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금융 규제 완화 이후 생활밀착, 게임, 유통 등 다양한 제휴사와 연계하여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시도 중임

- 정부는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*한 바 있음

* 금융위('20.12.10자) 보도자료, "디지털금융 규제 제도 개선방안"

국내·외 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현황

은행	내 용
DBS(싱가폴)	비금융플랫폼인 'DBS Marketplace'에서 400개 이상의 제휴 기업이 부동산, 자동차 구매, 항공·호텔 예약, 쇼핑,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
SBI(인도)	자사 앱 내 택시, 예약, 여행, 대리점, 이러닝 등 서비스 제공
RBC(캐나다)	RBC Ventures가 투자한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·인테리어·이사 등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
신한은행	자사 앱 내 부동산·재테크·여행·야구·운세 서비스 제공, 전기차 가격조회 플랫폼, 네이버 부동산 전세 매물 검색부터 대출까지 연계, 음식주문 배달 플랫폼 구축 중
우리은행	부동산 비대면 경매정보서비스,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제공, 개인 택배 배달·픽업 및 미술품 소액 투자 서비스 예정
국민은행	생활금융 플랫폼 제공, 부동산 앱, 구직 앱 별도 운영
농협은행	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가능한 생체정보 등록, 꽃배달 서비스 예정
하나은행	자사 앱 내에 아파트 정보·검색 및 쇼핑·여행·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,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, 넷마블 게임에 접목한 신규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

자료 :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종합 재구성

국제금융시장 5월 동향 및 6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유 나 (ynrhee@kdb.co.kr)
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◆ **(환율)** 5월 중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운데 위안화 강세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이 하락, 6월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, 수출 호조로 소폭 하락할 전망

◆ **(금리)** 5월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대체로 박스권을 등락하다 전월말 수준 마감, 6월에도 상승압력이 지속되겠으나 변동폭은 제한적일 전망

◆ **(주가)** 5월 주요국 증시는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, 6월에도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토대로 위험자산 선호 경향을 이어갈 전망

□ (환율) 5월 중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달러화는 약세, 원/달러 환율은 하락, 6월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운데, 수출 호조 등으로 원/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이 예상

○ (달러화) 달러 인덱스*는 5월 중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으며, 6월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,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와 관련된 경계감 등으로 제한적 하락 전망

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- (동향) 미국의 높은 물가지표와 상반된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달러 인덱스가 89pt대까지 하락하며 1월 초순 이후 최저치 기록
  · 4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과 관련하여 시장은 100만명을 예상하였으나,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시장 복귀 지연 등으로 실제 26.6만명 기록
- (전망) 글로벌 백신 접종 가속화 및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가 달러화 약세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, 6월 FOMC(15~16일)에서의 테이퍼링 논의 여부*와 물가 및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반등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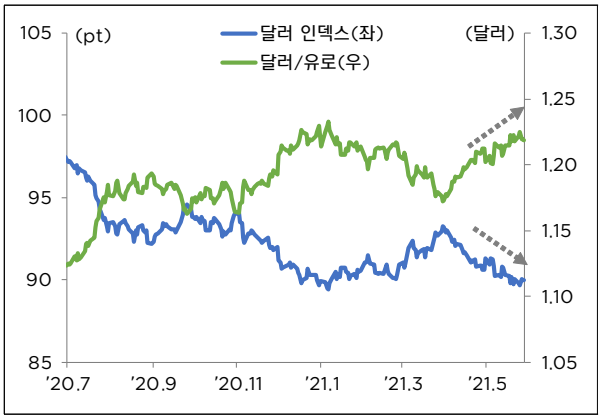
* 연준은 4월 FOMC 의사록(5.19일 공개)에서 "경제가 연준의 목표를 향하여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경우 앞으로 회의들 중 어떤 시점에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"며, 향후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

○ (유로화) 5월 중 달러/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기 정상화 기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, 6월에도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로 상승 전망

- (동향) 유로존 백신 보급 확대, 미국과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차 축소 등으로 달러/유로 환율은 올해 연저점(3.30일 1.17달러) 대비 4.3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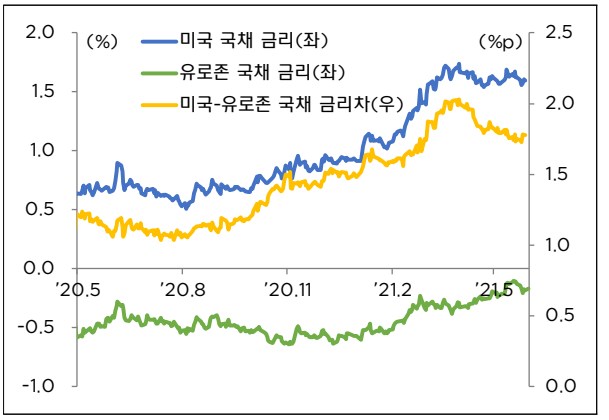
- (전망) 달러/유로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,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EU 회복기금 집행 및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회복 격차 축소 기대로 6월에도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, 레벨 부담으로 상승 속도는 둔화할 전망

달러 인덱스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미국-유로존 국채 금리(10년) 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○ (원화) 원/달러 환율은 5월 중 외국인 주식 매도,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, 6월에는 수출 호조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

- (동향) 월 중순까지 IT 업종 중심의 외국인 주식 매도* 확대,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이 1,13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, 이후 위안화 강세 등과 연동하며 전월말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하락

* '21년 외국인의 코스피 주식 순매수 월별 추이(조원) : 1월 △5.21 → 2월 △2.01 → 3월 △1.22 → 4월 0.39 → 5월 △8.49

- (전망)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속에 달러화 약세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원/달러 환율의 하락압력이 예상되나, 최근 위안화 강세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*,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가능성 등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* 5.31일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 내 달러 유동성 조절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2%p(5% → 7%) 인상

환율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4월말	'21.5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479	89.927	91.299	89.850	△1.59%
달러/유로	1.1219	1.2217	1.2020	1.2227	+1.72%
엔/달러	108.66	103.26	109.30	109.58	+0.26%
원/달러	1,156.4	1,086.3	1,112.3	1,110.9	△0.13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5월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대체로 박스권을 등락하다 전월말 수준 마감하였으며, 6월에도 상승압력이 지속되겠으나 변동폭은 제한적일 전망

○ (동향) 5월 국채시장은 미국의 가파른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 일각의 통화 완화정책 축소(테이퍼링) 논의 필요성 언급에 따른 경계감을 소화하며 전월말 수준 유지

- 미국은 월가의 추정을 크게 밑도는 4월 고용증가치 영향으로 연준의 현행 통화완화 기조 지속의 명분이 유지됐으며, 4월 FOMC 의사록의 테이퍼링에 대한 첫 언급에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장기금리의 상승세 제한
- 독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체적으로 동조
- 일본 장기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연장되고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좁은 밴드구간을 횡보하며 약보합

○ (전망) 테이퍼링을 둘러싼 최근의 시장 우려에도 불구, 6월 들어서도 각국 통화정책의 변곡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의 정책당국 발언에 대한 믿음은 이어질 전망

- 미국은 노마스크 활동이 확대되면서 생산 및 소비지표 개선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되겠으나, 6월 고용률 개선폭이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예상* 됨에 따라 연준의 6월 논의는 무난할 가능성이 커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

  *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추가 지급되어왔던 연방실업급여(FPUC :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)가 대다수 주(州)에서 6월로 종료를 예고하고 있어, 이에 편승한 일부 고의적 실업인구의 적극 구직 참여가 그 이후에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

- 유럽의 경우도 백신접종률 고조에 따른 일상수요 회복 속도가 더해지면서 금리 상승압력이 유지될 전망

주요국 국채금리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4월말	'21.5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1.9175	0.9132	1.6259	1.5943	△3.16bp
독일채 10y	-0.1850	-0.5690	-0.2020	-0.1870	+1.50bp
일본채 10y	-0.0110	0.0210	0.0970	0.0870	△1.00bp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5월 주요국 증시는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, 6월에도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토대로 위험자산 선호 경향을 이어갈 전망

○ (동향) 5월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제지표의 대체적인 호조로 물가상승과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안도를 오가며 완만히 우상향

- 다우존스 지수는 월초 주간실업지표 호조*로 상승한 이후, 고용지표 부진 소식에 되려 통화 긴축 우려를 덜며 상승을 이어가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(5.7일 34,777.76)를 경신

  * 주간실업보험 청구자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매주 경신하며 하향 추세로 4주차 40만6천명 기록

  · 이후, 예상을 초과한 4월 소비자물가의 상승*으로 통화정책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환기되며 다우존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(5.12일 1.99%↓)하다 월후반 회복하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

  * 4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: yoy 4.2%

- 유로 STOXX 50은 최근 강세에 따른 고평가 부담 및 미 증시 영향으로 출렁였으나, 역내 백신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유럽 경제전망 상향* 등으로 월후반 강보합하며 사상 최고치(5.28일 4,070.56)를 경신

  * EU집행위는 유럽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'21년 4.2%, '22년 4.4%로 각각 0.5% 상향

- 일본 Nikkei225 지수는 미 증시와 대체적으로 동조하며 전월말 수준 마감

○ (전망) 6월 증시는 각종 경기지표의 개선추세를 추가 확인하면서 포스트-코로나 기대심리의 확충이 이어질 전망

- 특히, 이달 중순 미 연준 FOMC 석상에서의 테이퍼링 관련 언급 유무 또는 수위가 시장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

- 유럽의 경우도 유럽중앙은행(ECB)의 견고한 통화완화 고수 입장, EU 주요국들의 경제봉쇄 완화, 하반기 유럽회복기금(NGEU) 집행 기대 등의 증시 우호요인을 선반영해갈 가능성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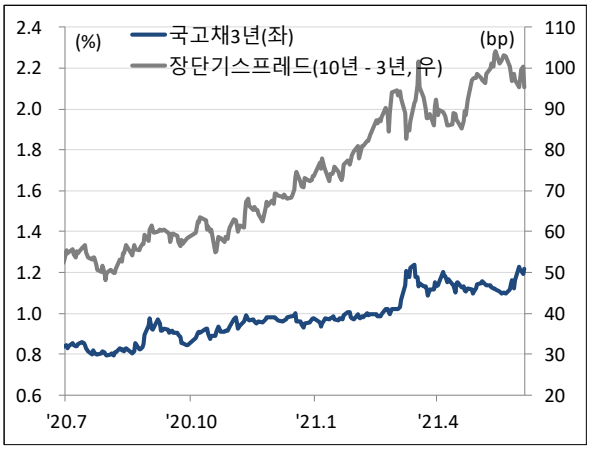
	'19년말	'20년말	'21.4월말	'21.5월말	전월대비
다우존스	28,538.44	30,606.48	33,874.85	34,529.45	+1.93%
유로 Stoxx 50	3,745.15	3,552.64	3,974.74	4,039.46	+1.63%
Nikkei 225	23,656.62	27,444.17	28,812.63	28,860.08	+0.1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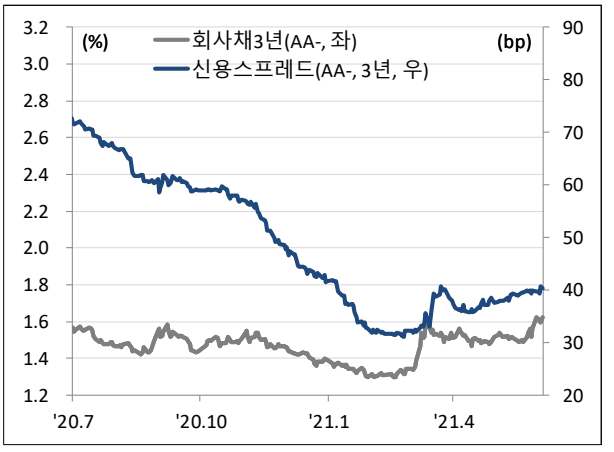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(담당자 : 환율 - 이유나, 금리·주가 - 장명화)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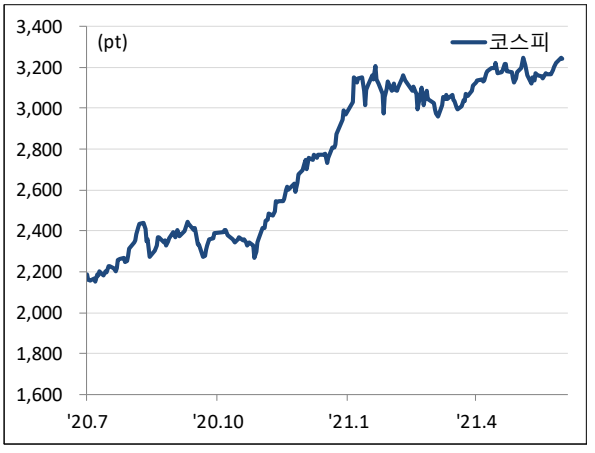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1.22% (5.8bp ⬆), 신용스프레드 40.3bp (0.4bp ⬆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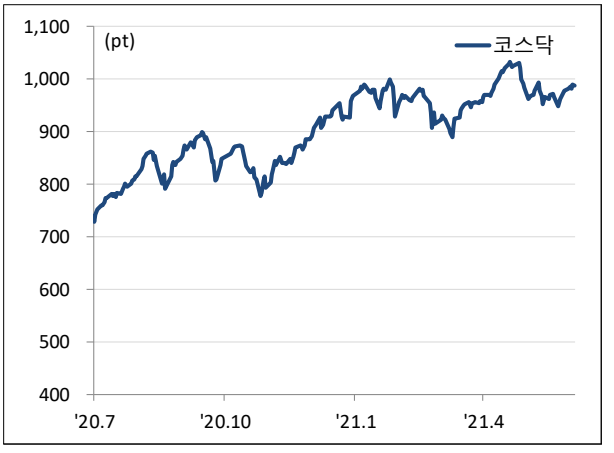




환 율 원/달러 1,116.5원 (1원 ⬆), 엔/달러 109.52엔 (0.34엔 ⬇)

주 가 코스피 3,240.08pt (1.61% ⬆), 코스닥지수 987.58pt (1.04% ⬆)





* ( )는 전주대비 상승↑, 하락

주간 KDB리포트
Weekly KDB Report

제930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